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8. 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프랑스, 서아프리카 지역까지 대테러 안보지원 추진

- 7.26 카메룬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중인 프랑스 「마크롱」 대통령은 자국군이 말리에서 철수하는 대신, 사헬 지역 뿐만 아니라 서아프리카 일대까지 활동반경을 넓혀 대테러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
- * 프랑스는 사헬지역 주둔군 규모를 이전 절반인 2,500명 정도로 再구성

미주

○ 美 항공당국(FAA), 여객기 조종석 테러방지 2중문 설치 지시

- 7.28 언론은 美 FAA가 여객기 납치와 테러 방지를 위해 새 규정에 따라 새로 제작되는 여객기에는 조종석과 탑승칸 사이에 반드시 2중문을 설치*하도록 항공사에 지시했다고 보도
- * 이는 9·11사태 이후 항공기 납치 및 테러예방의 근본적 조치로 거론됐으나 그동안 항공업계의 반발에 밀려 21년만에 적용된다고 부언

○ 美 하원, 러시아 테러지원국* 지정 법안 발의

- 7.28 언론은 하원 여야 의원들이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였으나, 지정 권한을 가진 「블링컨」 국무장관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고 보도
- * 현재 북한·이란·시리아·쿠바 등 4개국 지정, 원조 제한 및 방산물자 수출 금지 등 제재

○ 과테말라, 지방 순시 대통령 겨냥 총격 발생

- 7.31 과테말라軍은 「알레한드로 히아마테이」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부근 마을을 방문 중 무장괴한들의 총격을 받아 군인 1명이 부상당했으나, 대통령은 당시 사건 현장에 없어 위험이 없었다고 발표
- * 용의자 1명은 총격전으로 부상을 입고 체포됐으며 나머지 일행은 멕시코 국경으로 도주

아 · 태평양

○ 東투르키스탄 이슬람운동(ETIM), 아프간 內 건재 과시

- 7.28 외신은 위구르族 분리주의 세력인 ETIM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거점을 재건하는 등 건재를 과시하고 있으며, 탈레반이 동 무장 세력을 중국과의 관계에서 협상카드로 남겨놓고 있다고 분석

* ETIM은 탈레반 영향력을 견제하고 싶어하는 ISIS-K(호라산지부)와도 연계 강화

○ 日 전문가, '일본형 외로운 늑대 테러' 한국 전파 가능성 경고

- 8.3 「마사유키」 도요대 교수는 「아베」 前 총리 살해사건을 특정 종교·사상적 배경 없이 자기중심적 동기에 따른 '일본형 외로운 늑대 테러'라고 명명하며 한국 전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

「마사유키」 교수*는, '일본형 외로운 늑대 테러'는 주로 일본 특유의 사회적 폐색감(閉塞感)에 낮은 사회적 지위·빈곤 등 상황이 더해진 "답답한 상황에서의 무력감"이 결국 사회적 이슈가 되는 대형 범죄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하며, 향후 한국에서의 발생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언급
※ 저명한 범죄심리학자로 日 과학수사연구소 소속 프로파일러로 20년간 근무

○ 국정원, 「테러방지법」 시행 이후 외국인 14명 기소, 137명 추방

- 8.3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에서 지난 '16년 「테러방지법」* 시행 이후 현재까지 테러단체 자금지원, 지지, 선동 혐의 등으로 외국인 14명을 사법처리하고 10개국 출신 137명을 강제 퇴거했다고 보고

* 관련법에 의거, 국정원은 테러 관련 정보수집·추적, 관련자 감시·관리 임무 수행

아프리카

○ 나이지리아, 수도권 지역 및 5개州 겨냥 테러 가능성 경고

- 7.27 나이지리아 보안당국은 보코하람·ISWAP 등 테러단체의 수도권 및 5개州(잠파라·카두나·라고스·코기·카치나) 대상 테러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학교·교회 등과 주요시설 보안을 강화하였다고 발표

* 7.5 수도 아부자 인근의 쿠제 교도소를 무장괴한이 습격해 보코하람 가담 혐의 수감자 64명 등 수백명이 탈출하였으며, ISWAP는 同 사건 배후를 자처

美, 텍사스주 월마트 총기 난사

- '19.8.3, 오전 10:40경 美 텍사스주 국경도시 엘파스 소재 '월마트'에서 「페트릭 크루시우스」(21세, 남)가 무차별 총기 난사, 20명 사망·26명 부상
- 「페트릭 크루시우스」는 범행 前 「8chan」 SNS에 “히스패닉 이민자들은 우리 문화를 거부하고 일자리만 축내며, 세력을 키워 사회를 부패시키고 있다”며 인종주의적 증오감을 표출하는 글 게재
- 동명은 체포될 당시 “최대한 많은 멕시코인을 죽이려고 했다”고 언급한바, 공격의 목적이 대규모 무차별 인명살상이었음을 간접 시인
 - *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백인 우월주의에 기반한 테러로 규정
- 한편, 이번 사건은 그간 발생한 서구권 극우테러와 공통점이 있는데
 - '18년 피츠버그 유대 교회당과 '19년 뉴질랜드 테러범들처럼 범인이 공격계획을 동조세력(극우주의자)과 온라인을 통해 사전 공유했고,
 - 특히 뉴질랜드 테러와 비교해서는 범인이 △동일 SNS사용 △선언문 형식의 공격 이유 공개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
- 이런 가운데, 이번 사건은 지난 30여년간 미국 內 역대 총격사건 중 인명피해가 7번째로 큰 사건으로 기록되면서 총기규제 논란 再 점화
 - * 최악의 총기 사고는 '17년 발생한 라스베가스 총기난사(사망 59·부상 527)

테러 상식

< '17년 라스베가스 총기난사 >

- 라스베가스 인근 지역주민 「스티븐 패덕」(64세)이 '17.10.1 만달레이 베이호텔 32층에서 건물 앞 지상의 '컨트리뮤직 페스티벌' 공연장(당시 2만여명 운집)을 향해 자동화기를 난사해 59명이 사망하고, 527명이 부상당한 美 역대 최악의 총기사건
 - * 「스티븐 패덕」은 은퇴한 회계사로 도박을 즐기던 상당한 규모의 자산가로 알려짐
- ISIS는 同名이 수개월前 이슬람교로 개종했다며 배후를 주장하기도 했으나,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현장에서 자살해 버린 상황에서 테러조직 연계 등 범행동기 파악에 실패한 채 단독범행으로 결론